

목포시 국내 유일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속도

남항에 해상테스트베드·연구센터 등 구축...박홍률 시장 "친환경선박 메카 조성 역량 집중"

목포시가 남항에 국내 유일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조선-해운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선박 대기 오염 배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선박의 친환경화를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은 국내 연안선박이 집중돼 있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최적지이다. 목포시는 남항에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 잠재된 지역의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선박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가 국내 유일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추진 차도선 시험 운항.

우선 친환경선박의 혼합연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육-해상 인프라를 남항에 구축할 예정이다. 친환경 연료인 LNG에 암모니아나 수소를 혼합한 친환경 연료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연료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추진시스템의 실증을 위한 해상테스트베드가 추진된다. 친환경선박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연구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도 남항에 들어선다. 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캠퍼스를 개설해 친환경선박 시장에 대응할 핵심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그린 모빌리티' 전공이 신설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목포캠퍼스 개원 후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친환경선박산업을 목포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선박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다도해가 한눈에...목포 보리언덕 목포시 서산동 보리언덕이 다도해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로 재탄생했다. 보리언덕은 쌀이 귀해 주식이로 보리를 곁들여 먹었던 시절, 6월 망종이 되면 보리를 수확한 후 4~5일 밀려 단을 묶어 쌓아놓고 보리타작을 하는데 그 보리단을 펼쳐놓았던 곳이라 해 일컬어진다. 시는 길이 200m에 폭 1.5m 산책로를 조성하고 뷰 포인트 설치를 위해 종려나무 등 18종의 수목·화훼를 심었다. <목포시 제공>

신안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231억 투입

공모 선정...3개 항에 경제·생활플랫폼·안전인프라 개선키로

신안군이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대상 항에 3개소가 선정, 2026년까지 국비 등 231억 원(162억원, 지방비 69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활력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워,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복지·문화·물류 등 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경제플랫폼, 어촌생활플랫폼 및 어촌안전인프라 개선 등 총 3개 유형으로 추

진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어촌경제플랫폼 5개소부터 어촌생활플랫폼 30개소, 어촌안전인프라 개선 30개 등 6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될 방침이다. 군은 2023년 어촌생활플랫폼 조성 1개소(다수항), 어촌안전인프라 개선 2개소(진번·칠동항, 비라·마리항)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231억원을 확보했다. 관내 지방어항 13개로 전남의 15%, 소규모 항·포구는 198개로 전남의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때문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 정비가 미흡해서, 어촌주민들이 어업활동

을 통해 획득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1차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2023년도 3개소 선정에 이어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신규인력 정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임해 전국 최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추진하는 방식과 달리 어촌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농어촌공사가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청수저수지 상류 공공관정을 가동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있다.

"가뭄 대비 저수지를 채워라"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신안 양수저류 시설 상시 가동 퇴적도 준설 배수로 물가두기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가 평년대비 60%의 강수량으로 저수율이 심각단계인 저수지를 위주로 2023년도 선제적 가뭄 극복을 위해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는 가뭄대비를 위해 신안군 지역의 10개소의 양수저류 시설물을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강우시 양수저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배수로 물가두기를 위해 퇴적도 준설을 실시해 물그릇을 키워 양수효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논물가두기 등 농업용수 절수방안을 계획하고 농업인들에게는 효과적인 물 절약 실천방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신안군 소재 탄동저수지에 저류용 양수장을 시험 가동하여 배수로 잉여수 발생시 상시 양수저류 할 수 있도록 관리자 교육과 시설물 점검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신안군 상수원의 고갈로 생활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공사관리 농업용수를 원수로 공급 요청한 비금면 광대제 외 3개소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축할 방침이다. 무안의 경우에도 영농급수를 마치고 계속되는 무강우로 인해 현재 저수율이 5.3%인 청수저수지(청계면)의 저수율 확보를 위해 저수지 상류에 사용하지 않는 공공관정 1공과 개인관정 1공을 입차·보수해 지난 15일부터 하루 200t의 지하수를 저수지에 양수해 물채우기를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임차한 관정을 24시간 가동 5월31일까지 저수율 40%를 확보해 무안군 청계면 청수저수지 수해지역의 모내기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영농기가 마무리 되는 10월까지 상시가동할 계획이다. 박형수 목포무안신안지사장은 "2023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농업인들의 안전영농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뭄극복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솔라시도에 청년창업지원 '스테이션H' 건립

미래산업 전문기술 교육·창업지원...2024년 준공 예정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스테이션H(솔라시도 스마트밸리)를 건립한다. 스테이션H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4차산업 및 미래산업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기업도시내 연계한 인력양성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 임시 창업공간 등을 제공한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확정돼 총 60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2024년도까지 연면적 1928㎡의 2층 건물을 신축한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정부의 탄소중립 클러스터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및 발전단지 조성 계획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은 물론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내최대 산이정원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등 도시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또 글로벌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 등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속속 밀려들고 있어 활성화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관광, 레저, 4차 산업,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등 지역 내 다양한 산업 활성화와 함께 인적자원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의 요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스테이션H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오는 2024년 본격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빈틈없이 운영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가축전염병 예방 총력

축산시설 일제소독·농장 방문 자제 홍보 등

진도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도군은 설 명절 전·후 농장과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의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들의 축산농장 방문 자제 등을 홍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가금농장의 축사 내·외부 청소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지도와 함께 예방을 강화하는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장 주변 소독지원과 거점 소독시설·농장 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활동으로 진도군은 지난 2016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진도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js7777@kwangju.co.kr

영암군, 귀농·귀촌인 학습동아리 지원

영암군이 다음달 10일까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자기 진작을 위한 2023년도 귀농·귀촌인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관내 거주자 12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품목별 학습동아리로, 학습동아리당 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암군으로 전입한 지 10

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이 포함됐거나, 여성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된 모임체의 경우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해 귀농·귀촌인을 안정적으로 영암에 정착시키는데 있다"며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과 귀농·귀촌인의 정보 습득과 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희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신청

해남군이 여성농어업인 문화 활동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해남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여성농어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만원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본인이 직접 발급처인 농업경제지원(농업) 및 각 지역농협에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신청기한은 2월 28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영광군 "미래 먹거리를 찾아라"

민선8기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

영광군이 최근 민선8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윤석열 정부 정책, 공모사업, 민선8기 공약사업, 중장기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려는 게 주요 목적이다. 특히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방문시 체계적이고 확인가능한 증빙자료가 부족해 사업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24-2026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핵심 분석자료를 사전 제작하여 준비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군의회 의원과 실과소장이 모두 참석해 영광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힘을 보냈다. 용역을 맡은 (재)광주전남연구원 박용희 정책지원단장은 대전환 시기의 영광, 대형사업 10건 이상 발굴을 목표로 30건의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영광군은 이번 용역에서 주민 설문 및 심층 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정식 영광군 부군수는 "이번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산업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진행될 군민 의견수렴에 다수의 군민들께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수 기자 jylee@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